

## 일간지 출판기사 색인

- 뿌리내리는 연작소설 / 「난장이가 쓰아올린 작은 공」 이후 서정인, 박영한 등 잇따라 출판 / 소시민의 일상 통해 80년대 투영(중앙경제신문 6월21일 朴海鉉기자)
- 89상반기 최고 베스트셀러 - 종로서적, 교보문고 집계 / 소설·수필 강세에 詩 상대적 약세 / 독자들 유명작가 선호 경향 뚜렷(일간스포츠 6월21일 金炳勳기자)
- “억눌린 자의 향비를 대신” - 소설 「인간시장」 20권으로 완결 / 5공화국 시절 온갖 사회비리 고발 폭발적 인기 / “80년대 우리 사회사 연구에 좋은 자료 될 것”(한국일보 6월22일 徐華淑기자)
- “청소년도서목록 다시 짜야” - 대한출판문화협회 주최 출판경영 자세미나 / 고전편중 벗고 과학서적 권장 / 출판물 유통구조 개선 시급한 과제(서울경제신문 6월22일 姜升遠기자)
- 도서교환권 첫선 준비 한창 - 다음달부터 상품권 허용돼 대형서점 별로 발행 / 대한출판문화협회 공동 관리방안 검토...독서운동 큰 몫 기대(한겨레신문 6월22일 신연숙기자)
- 도서 도매기구 3모델 제시 - 외대 全元在 교수 / 단일·광역·분야별 유통구조가 바람직 / 출판사, 도매상, 서점의 이해 얽혀 합의 어려울 듯(국민일보 6월22일 朴太堅기자)
- 베스트셀러, 소설·산문 다시 강세 / 「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있다」, 「나는 야한 여자가 좋다」 1, 2위 / 시집은 주춤...대학가 낙서집 인기(중앙경제신문 6월23일 金龍善기자)
- “소설류가 베스트셀러 전면” - 상반기 국내 독서계 인기도 조사 / 5개작품 10위권에 랭크...시집은 시들 / 「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있다」 1위, 수필집도 강세(서울신문 6월23일 李憲淑기자)
- 대학가 ‘주체사상파’ 검거령 -

- 이념서적 압수 / 「주체사상의 철학적 원리」(백산서당)외 29종(동아일보 6월23일)
- 소비자정보지 큰 인기 - “정확한 상품정보를 드립니다” / 총4종... 품질테스트 공신력 얻어 / 피해보상 사례 실생활에 도움(중앙경제신문 6월25일 李京宣 기자)
- “북한실상 바른 이해 돕는다” / 을유문화사 총11권 책자 발간 / 정치 등 분야 객관적 기준 제시(매일경제신문 6월26일 李奉濤기자)
- 상반기 소설·수필 ‘불티’ - 종합 베스트셀러 이문열 ‘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있다’ 등 상위권 / 북한 원전·시집 열기는 시들(경향신문 6월26일)
- “TV·잡지 선정적 표현 심하다” - 대중매체 퇴폐오염 실태 / 비디오테이프 범람 性자극 가세(동아일보 6월26일 鄭星姬기자)
- ‘책문화 디딤돌’ 문고 사양길 / 70년대 30여종서 현재는 5~6종뿐 / “수익률 낮다” 출판기피...독자는 외면(중앙일보 6월26일 李憲益기자)
- 기업들 사보발간 급증 - 7백종 넘어...은행, 증권업 많아 / 소비자에겐 ‘이미지 홍보’ 사원들에겐 ‘의사소통’(중앙경제신문 6월27일 朴興魯기자)
- 韓水山씨 소설 3권 개작 출판 - 70년대 인기작...「가을 나그네」는 한달새 만권 팔려(조선일보 6월27일)
- 남북한의 언어실태 비교서적 잇달아 출간 - 「북한의 어학혁명」, 「언어비교」, 「국어연구」 등 / 언어정책과 문법변화 등 다뤄 / 상호 이질 화극복의 디딤돌로(한국일보 6월27일 徐華淑기자)
- 도시문제 분석한 책 출간 활발 - 주택, 교통, 신도시개발, 재개발 등 다각 조명(동아일보 6월27일 宋煥彥기자)
- 서정적 소설·수필류 상위권 - 상반기 독서경향과 베스트셀러 순위 / 시, 이데올로기류 시들...인문사회관심(한국경제신문 6월28일 李汀桓기자)
- 출판가에 북경파고 “중국소설 출간 붐” 항일투쟁, 문화혁명, 현대 화속 소외문제 등 폭넓게 조명 / 60년대 문체작 「붉은 바위」서 모택동·등소평전기까지(스포츠서울 6월28일 오정국기자)
- 故채광석 전집 완간 - ‘민중적

- 민족문학’ 주도 / 2주기 맞아 서한집, 비평집 등 7권 출간 / 보수문예지들도 추모특집 꾸며 사후에 각광받아(세계일보 6월28일 梁憲錫기자)
- “저작권법 현실에 맞게 고쳐야” - 저작권법시행 2돌 맞아 심의조정위 세미나 / 복사업소에 사용료 부과...작가에 쥐야 / 이미 보도된 내용, 타신문·잡지 전제 허용돼야 / 세계협약에 82국 가입...보호절서 급면 대처를(서울신문 6월29일 李憲淑기자)
- 생활법률서적 인기 / 부동산, 채권, 채무 등 분야별 쉽게 풀이 / 「당신도 소송할 수 있다」 등 쏟아져 나와(세계일보 6월29일 申敏亨기자)
- 올 상반기 베스트셀러 국내 창작물 휩쓸어 - 「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있다」·「백지애인」·「나는 야한여자가 좋다」가 1·2·3위(세계일보 6월29일)
- 시사잡지 창간 붐물 - 올해안 7종 첫선...시대적 요구 반영 / 「다리」지 폐간 18년만에 복간 / 전민련도 정세분석지 준비중(한겨레신문 6월29일 신연숙기자)
- 여행안내서 출간 러시 - 피서지에서 낚시소개까지 다양 / 250여종 선비...꾸준한 인기 / 해외여행용은 복사판 많아 주의해야(중앙경제신문 6월30일 金龍善기자)
- “저작권 시행 2년 무엇이 문제인가” - 세미나 주제 발표 요지 / 版面權은 찬반 엇갈려 / 「복사늘어 부과금제 도입 절실 저작자에 대여료 일부 지급을”(중앙경제신문 6월30일)
- 신학계 학술전문지 러시 - 개방 바람 타고 保·革 다양한 목소리 / 초교과적 ‘대화의 창’ 마련 활발 / 전통문화와 기독교 접목, 한국신학계승 등 역점(국민일보 6월30일 金寶亨기자)
- “전10권 본격 중국사개설서 나온다” - 서울대 동양사학과 20돌 기념...동문학자 30여명 참여 / 국내외 최신 연구성과 종합서술 8월께 첫권(한겨레신문 6월30일 金慶철기자)
- “반전·반핵. 서적 쏟아진다” - 소설·문고 시리즈까지...20여종 출판 / 한반도상황 맞물려 ‘운동’ 확산 / “본질외면 추상론양산” 우려도(조선일보 6월30일 崔球植기자)
- “중산층의 잡지” 잇단 창간 - 이념논선, 사회구범 실종...이대론

- 안된다 / 「사상」 - 지성훈련 통해 이념갈등 치유 / 「자유발언」 - ‘민주가치수호’ 시민주당 담아(조선일보 7월1일 金泰翼기자)
- 서점가 ‘북한 요리책’ 등장 / ‘명태 데친회’, ‘강냉이 단묵’ 등 / 천여종 원전·컬러 화보로 엮어(조선일보 7월1일 金明煥 기자)
- “한국 세계 제2의 聖書왕국” - 한해 1백만권 이상 반포...미국 다음 / 목회자·평신도 중심 연구모임도 활발(서울신문 7월2일 黃圭鏞기자)
- “한국출판의 메카 만든다” - 서울근교에 출판문화산업단지 추진 / 500업체 입주...편집·제작·유통 한곳서 / 준비위 결성...91년까지 기초설계 끝내(한국경제신문 7월2일 李汀桓기자)
- “첫 국내판 성서주석 펴낸다” - 대한기독교서회 창립 1백돌 기념 사업 / 군소출판사 업무뭉치 큰 일...신·구 66권 / 신학연구성과 집대성...5년 걸쳐 출간(한겨레신문 7월2일 오룡기자)
- 저작권법 개정 위한 토론회 / 무단복제 막을 복사업소 부과금제도 필요 / ‘북한’ 특례법 시급...조정전 치주의 도입을(한겨레신문 7월2일 신연숙기자)
- “저작권 보호 추세 따라 대역권도 인정하도록” - 저작권심의조정위 세미나서 주장 / 음반·비디오테이프·서적 등 해당 / 당국선 “문제점 많다” 신중한 자세(국민일보 7월3일 權赫鍾기자)
- 서울외곽에 ‘출판타운’ 만든다 - 추진위, 95년 완공예정 당국과 用地문제 등 협의 / 일관공정 가능케 관련업체 함께 입주 / 박물관 등 공공시설에 아파트 단지도(중앙일보 7월3일 李憲益기자)
- 도서매가 출판문화 도시 세운다 - 서울근교에 백만평규모 단지 90~95년 조성 / 인쇄·제본·사식 등 5백업체 입주 / 종사자 5만 거주...학교, 상가, 레저시설도(경향신문 7월3일 安健赫기자)
- 서울근교 대규모 출판타운 추진 / 인쇄, 제본, 연구소에서 사원 주택까지 / 출판계 준비위 구성...19일 심포지엄(동아일보 7월3일)
- 중견문인들 신작출간 러시 - 김광균씨 노익장 과시...「壬辰花」 펴내 / 최일남 「숨통」, 박태순 「낮선 거리」 등 / 오찬식씨 「빨치산문학대열」 참가(서울경제신문 7월4일 姜升

- 遠기자)
- 저작권세미나...주체 「현행 저작권법 및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」 / 우선보호 저작자·수용자 맞서 / 조문 구체화, 소송절차 개선 권요(한국경제신문 7월4일 李汀桓기자)
- “북한의 인식” 11권 나온다” - 무분별한 원전 출판에 대응...객관적 분석 / 공익자금으로 출간 추진 / 각 분야별 교수들이 편집(세계일보 7월4일 申敏亨기자)
- 채광석전집 5권 출간 - 2주기 맞아 시, 평론 등 4권 문학자취 담아 / 민중적 민족주의 주장한 ‘문단의 침병’ / 소시민적 한계 비판...변혁운동가로도 활동(한겨레신문 7월4일 조선희기자)
- 50만평·부지에 5백업체 입주 서울근교 출판도시 조성 - 세계최초...이달중 발기인대회 / 출판·인쇄·유통 한자리에 / 예술학교 박물관도 건립...정부차원 지원 필요(조선일보 7월 4일 崔球植기자)
- “한국어 큰사전” 만든다” / 2천페이지 책으로 10권 목표 / 숙어·과생어 등 30만마디 수록 / 연대서 2009년까지...교수 3백70명 참여(동아일보 7월 4일 金承旭기자)
- 출판사·서점 압수수색 잇따라 - 안기부 ‘좌경실상 자료집’ 배포한 뒤 / 수술받고 입원중인 출판사 대표 연행도(한겨레신문 7월 5일)
- “남녀 성차별 부추겨 그릇된 여성관 심는다” - 출판인 염재용씨 ‘비판서’ 내 작가 마광수씨 공격(스포츠서울 7월 5일 金해경기자)
- “남북 출판수준 20년 격차난다” - 출간러시 북한서적 실상 / 우리 영인본이 원전보다 상태좋아 / 갭지에 활판 인쇄...字體개발 등한시(조선일보 7월 5일 崔球植기자)
- “성주제 서적 쏟아져” / 원초本性으로 중요성, 기능고찰 / 마광수 「나는 야한 여자가 좋다」 시발 / 동성애, 근친상간 등...상업성에 함몰 걱정도(내외경제신문 7월 5일 南眞祐기자)
- “보는 책” 표방...시리즈 출간 - 소재다양한 원색화보에 설명 곁들여(한국경제신문 7월 5일)
- 「우리 아이에게 무슨 책을 권할까」 추천도서 3백권 목록작성 - 서울지역 초중고 교사 60명 / 주체적 사고·가치형성 / 학생들에게 좋은 반응(국민일보 7월 6일 朴太堅기자)